



진안군은 고소득 원예 산업 집중 육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24개 사업에 7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진은 깻잎 하우스

# 진안 원예산업 중점 육성

### 군, 올해 24개 사업에 전년대비 22억 증가한 73억원 투입

진안군은 지역특성을 살린 고소득 원예 산업 집중 육성과 실질적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24개 사업에 73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군은 이상 기후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8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동력·생산비 절감과 과수시설 개선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16개 사업, 23억 원을 투입하여 진안군 원예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특히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농작업 개선을 위해 많은 농가들이 하우스 시설을 희망하고 있어 특화품목 시설 하우스(8.2ha)와 시설원에 현대화 지원, 원예작물 생산성향성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시설원예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과수생산 여건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사업을 선정, 선정됨에 따라 약 10

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2년간 백운면 일원에 과수 용수원개발과 경작로 정비 등 과수 경쟁력 향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고원의 지리적·기후적 특성을 활용하여 미래 수요대비 유망작목을 전략적으로 규모화하고, 특화품목 생산 유통기반의 확충으로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공모사업 선정

### 국비 6억 지원받아... 장수 사치재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 투입

장수군은 환경부에서 주최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공모사업은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환경부 기금'으로 생태계 복원, 자연보전 사업 등을 공모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장수군 번안면 사치재에 백두대간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치재는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과 인접하고 있으나 구 88고속도로에 의해 단절·훼손된 핵심 취락지역으로 그동안 덕유산~지리산 연결하는 생태축 복원이 절실히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그간 광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구

88고속도로 사치재 구간 생태복원방법에 대하여 환경부, 전라북도, 장수군,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공사, 국민자연신탁등 여러 기관이 복원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한국도로공사 생태통로와 건설과 사유지 매입은 국민성금으로 완료된 상태이고, 전라북도에서 지방도와 군도 연결 사업을 설계 중에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불소양치 용액 무료나눔 진안군 보건소·지소, 26일부터 매주 월요일 130명에게

진안군은 치아우식증과 시린이 완화에 효과적인 불소양치 용액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치과의사 근무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 매주 월요일 130명에게 무료 나눔을 실시한다.

불소양치는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강건강 관리법 중 하나로 올바른 칫솔질과 함

께 주1회 꾸준히 사용할 경우 효과가 있다.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불소용액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및 올바른 칫솔질 체험과 함께 1개월간 사용할 불소양치 용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오복 중 하나인

치아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불소용액 양치법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소양치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63-430-853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

## 등기신청 의무기한 문자로 알려줘

### 무주군 행정서비스 '호응'

무주군이 주민 편에 선 행정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해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법규정을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빈번한데 따른 조치로,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김연홍 토지관리 담당은 "신청기한 등을 문자로 공유하기 때문에 등기해태 비율도 그만큼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대로 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 행정서비스 '호응' 플랫폼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수자 등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무주군이 올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위해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120동/동당 336만 원 범위 내 지원)한다.

주민 건강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주택과 부속건물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를 전면 철거할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을 예정으로, 무주군은 3~4월 경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적조사를 실시해 5월부터는 대상지 철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령농 벼 육묘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장수군, 23일까지

장수군이 '고령농 벼 육묘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고령 농업인을 상대로 실시되는 '고령농 벼 육묘지원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육묘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70세이상 농가 또는 65세 이상 독거 여성 농업인 중 벼 경작면적 6,600㎡이하 소규모 영세 농업인이다.

장수군은 고령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부터 450농가에 59천 판 130ha를 지원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전년도와 같은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둔 상태이다.

올해에도 2월2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육묘 1상자 당 2,240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56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장수군은 5월부터 공동육묘장을 통해 육묘 공급을 시작하여 6월초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산림분야 근로자 발대식

진안군은 19일 올해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근간이 되는 산림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공공산림기부금을 비롯해 총 12개 분야 근로자 63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고 각종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며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전문가로부터 산림사업장 내에서의 안전수칙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고 산림분야 무재해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군 관계자는 "안전수칙 염수 등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농식품 아카데미 판로개척과정' 교육

### 장수군, 27일-8월까지

장수군은 관내 농업인 및 식품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8월까지 '농식품 아카데미 판로개척과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아카데미'는 장수군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기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계약재배, 판로개척, 상품개발 3 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판로개척과정은 지역 내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로를 격정하고 고민하는 농업인과 식품산업 종사자들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

온라인 마케팅 교육은 농업인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블로그, SNS, 스마트스토어(스토어팜) 등의 역량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과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마케팅 교육은 농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판로에 대해 알아보는 학습시간과 서울 마르쉐 등의 파머스마켓 현장견학, 그리고 매일 첫째주 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리는 '장수모이장'에 직접 참여하여 소비자들과 만나는 과정까지 실제로 판로를 개척해가는 과정이다.

서정원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속모이장'에 직접 참여하여 소비자와 만나는 과정까지 실제로 판로를 개척해가는 과정이다. 서정원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